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대상자에 메시지 발송”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24~29일, 소상공인 28일 돌봄지원금 추석 전...“문자 받고 즉시 신청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지급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 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

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이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텔뱅킹 계좌로 준다.

특고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



BTS로부터 선물 받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식은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에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안내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의당 중앙당사에서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재산신고 누락’ 김홍걸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사진)을 제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გადა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전날 본격 가동된 당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다만 자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신분은 유지된다. /연합뉴스

“통신비” vs “무료 백신”...추경 격돌

여야, 내일 본회의 앞두고 막판 ‘빅딜’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평행대치만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원 및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나온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0일 “추석 전에 지원책 집행을 시작하러

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통신비 지원 조정에 대한 내부 의견은 없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내선 1,100만명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백신사업을 반영하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마땅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백

신 약 300만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1조원으로 국제 발령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지원이 절실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백신 무료접종 시행을 포함한 기존 입장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

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돼도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추석 전 집행을 시작하기에 이미 촉박한 상태지만, 야당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해야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현재로서는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 경우 결국 뼈든한 일정에 맞춘 심사가 불가피해 ‘졸속·감감일’ 판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장관 “전작권 조기 전환”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사진)은 지난 18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부대 정밀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제기된 의혹 관련) 부족한 부분이 군 전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 부대를 면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왕 규정을 정비하려면 시행령, 훈령, 규정 등을 일치시키는 등 신중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정을 1대 1



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융통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우리 군의 능력을 정밀히 평가해 전환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Amore
단독 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웨딩

Lobby
넓은 로비, 깔끔한 인테리어로 품격있는 만남의 공간

Fedes
동 형태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웨딩홀

Parking
넓은 주차장 완비

제이아트웨딩컨벤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Wedding Day

결혼식 / 피로연 / 가족행사
기업행사 / 모임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로 269.
제이아트웨딩컨벤션 대표전화 062) 369-5200 / 010-4515-5203